



칠순 맞은 국립극장 '시대의 거울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기사입력 2020-04-26 06:34



[앵커]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염원을 담아 설립된 국립극장이 칠순을 맞았습니다.

6·25 전쟁과 한국 근대사를 거치며 '시대의 거울'로 우리 공연 예술의 중심에 섰던 국립극장의 역사를 홍상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1950년 4월 29일, 지금의 서울시의회 건물인 부민관에서 문을 연 국립극장,

하지만 개관한 지 58일 만에 일어난 6·25 전쟁으로 대구로 자리를 옮겨야 했고, 전쟁 이후에는 지금의 명동예술극장 자리인 서울 시공관으로 이전합니다.

이후 장충동 극장이 만들어져 1973년 지금의 남산 시대를 열었던 국립극장이 올해로 고희를 맞았

습니다.

[김철호 / 국립극장 극장장 : 문화입국을 꿈꾸고 국립극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직접 실천했다는 것, 문화에 대한 안목과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부분들이 대단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응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국립극단의 '원술랑'과 '만선', 국립 창극단의 '춘향'을 포함해 '마당놀이'까지 3천 5백여 편의 공연으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손진책 / 연출가 : '성웅 이순신' 그때 허규 선생님이 연출하시고 제가 조연출을 했습니다. 국립극장을 여는 작품에 참여한 의미가 남다르고요. 전 국민이 기대하고 찾아와서 만월을 이루는 마당놀이가 국립극장이 주관이 돼서 한 것이 의미고, 저에게는 잊지 못할 공연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맞아 예정했던 기념 공연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1962년 첫선을 보인 이후 국립극장과 역사를 함께 해 온 창극 '춘향'과 '한국 오페라 베스트 컬렉션', 겨레의 노래'는 다음 달부터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소연 / '춘향' 역 : 춘향전은 국립창극단이 창단됐을 때 공연했던 작품이거든요.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젊은 예술가들에게도 이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꿈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거울로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 공연예술을 지켜온 국립극장이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가볍지 않습니다.

전통예술의 현대화와 함께 우리의 공연 예술을 세계 속 작품으로 성장시키는 중심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 네이버채널 구독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보세요!
-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2&aid=0001432760>